

[발표 4]

방글라데시 빈곤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 NGO기관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¹⁾ -

주한나, 박근혜, 윤현, 성지현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BK21사업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BK21 세계화 시대의 사회복지 리더 양성 교육·연구단'에서는 방글라데시의 빈곤문제 및 대표적 취약계층인 아동 및 여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조사를 실시하였다.²⁾

방글라데시의 빈곤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국가적인 문제이며, 방글라데시 인구의 48%가 19세 이하인 것을 볼 때, 아동은 방글라데시의 빈민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대상층으로 그 대책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아시아개발은행, 2003).

빈곤문제는 그 자체로서 아동양육의 환경상의 박탈이나 결함이라는 속성을 지녀 아동에게 여러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아동의 학교생활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빈곤아동에게 학교적응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허남순 외, 2005).

방글라데시 아동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방글라데시 정부와 유니세프,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진 방글라데시 아동의 교육, 건강·영양·보건 등에 관한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의 아동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David L Parker, 2002; Takashi. I., A. Tsutsumi, A. Md. Islam, S. Kato, S. Wakai, and H. Kurita, 2006; Salmon, 2005; Rahman · Chowdhury, 2007; Greksa et al, 2007), 아직까지 아동의 실제적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 빈민지역에 위치한 현지학교의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및 방과 후 생활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의 학교 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BK21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2006년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Grameen Bank)와 MOU 협정 체결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2. 선행연구고찰

1) 방글라데시 아동 현황

방글라데시에는 1억 3천 800만 명 중 4,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5세 이하의 아동이 겪는 빈곤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다. 방글라데시의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41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 전체에 만연한 아동 영양 결핍 문제로 5세 이하 아동의 50%가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있다(Save the Children 홈페이지). 이처럼 심각한 아동 빈곤문제는 길거리아동(street children)과 아동노동의 문제로 이어진다. 방글라데시의 길거리아동(street children)이란 생계를 위해서 도시의 거리에서 머물면서 구걸행위를 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길거리아동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길거리에서 항상 노숙하며 생활하는 유형이며, 둘째로 낮에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일을 하며 돈을 벌다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유형이다(Susanta Kumar Barua, 2006). 길거리 아동의 노동참여로 방글라데시의 아동노동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2002-2003년도에 방글라데시 통계부가 실시한 국가아동노동조사(National Child Labour Survey, NCLS)에 따르면 5-17세 아동노동인구는 약 790만 명이다. 아동노동문제는 빈곤의 주된 원인이자 결과이며 빈곤의 악순환 요인이다.

1994~2003년간 6세~10세 방글라데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80%선에서 머물렀다(KOICA, 2006). 반면 중도탈락률은 같은 기간 동안 35%에서 33%로 감소하였다. 중도탈락률의 주된 이유로는 아동의 가사노동참여, 낮은 교육의 질,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나타났다(UNICEF Bangladesh 홈페이지).

방글라데시의 초등교육 과정 이수율은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초등교육의 질과 초등교육 졸업자들의 경쟁력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교육의 질 저하현상은 부족한 수업시간과 높은 '학생 대 교사비율'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inistry of Women and Children affairs, 2006).

2)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학교생활적응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동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자아개념, 신체적 건강상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수업동기, 우울/포기 성향 등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옥분, 2000; 박현선, 1998; 장은진, 2003). 특히 아동의 신체적 건강은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건강장애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가족관련변인으로는 가족 또는 부모의 빈곤,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의사소통방식,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훈육방식 등이 있다(구인회, 2003; 장경선, 2006; 정은하, 2006).

이 외에도 사회적 관계변인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석(200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요인, 즉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방글라데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학교생활적응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로 방글라데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방글라데시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 정도는 어떠한가?
2. 연령,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 신체적 건강, ADHD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3. 부모의 훈육방식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3. 조사방법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BK21 방글라데시 지역연구팀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방글라데시 빈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도시빈민지역에 위치한 초중등학교에서 3~8학년에 해당하는 총 20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생활수준,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 부모의 훈육방식, 학교중단사유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척도 및 ADHD 문제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척도는 김용래(2000)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0.965로 나타났다. 아동의 ADHD의 증상이 되는 행동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단축형 Conners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0.846으로 나타났다.

설문지는 방글라데시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현지인이 벵갈어로 번역을 하였고, 조사 후 번역이 필요한 부분은 한국어로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4. 조사결과

1)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49.0%, 여자가 50.0%로 나타나 남녀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11.72세(표준편차 1.58)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학년분포를 살펴보면, 3학년이 63명으로 전체의 30.9%, 4학년이 42명인 20.6%, 5학년이 39명인 19.1%, 6학년이 26명인 12.7%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아동이 인지한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아주 못사는 편이다'~'아주 잘사는 편이다'를 1점~5점으로 코딩하였을 때, 평균값이 2.60점(표준편차 1.02)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중간보다 약간 못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 부모의 훈육방식, 아동의 ADHD 문제행동

먼저 응답자가 인식한 평소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본인의 신체

적 질병수가 0개인 경우가 85명인 41.7%였으며, 신체적 질병수가 1개인 경우는 84명인 41.0%, 2개 이상인 경우는 30명인 14.7%로 조사되었다. 평소 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질병수를 1개, 2개 이상으로 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픈 곳에 대해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 '두통'이 55명인 31.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배앓이/복통'(18.8%), '눈의 이상'(16.5%), '몸이 쭈시고 아픔'(15.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주로 어떻게 하는지의 질문을 통하여 부모의 훈육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말로 타이르신다', '용서해주신다', '기도한다' 를 긍정적 훈육방식, '소리를 지르신다', '벌을 주신다', '막대기 등으로 때린다' 를 부정적 훈육방식으로 나누었을 때, 부모님께서 긍정적 훈육방식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151명인 74%로 나타났고, 부정적 훈육방식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45명인 22.1%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ADHD 문제행동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19.3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점수의 분포가 10~40점인 것을 고려할 때에, ADHD 아동의 주요한 증상이 되는 행동적 문제는 중간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예측되는 학교 중단 사유

응답자가 만일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타의 응답을 제외하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8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비가 없어서' 44명(21.6%),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22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환경적응의 평균은 41.09점, 학교교사적응 평균은 43.29, 학교친구적응 평균은 36.27점, 학교생활적응 평균은 32.2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152.8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점수의 분포 가능한 범위가 33~165점임을 고려할 때에, 학교생활적응을 비교적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요인별 각 항목 당 평균을 살펴보면, 학교환경적응이 4.57점, 학교교사적응은 4.81점, 학교친구적응은 4.53점, 학교생활적응은 4.6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조사 결과(김미숙, 2006; 이점순, 2006)와 비교해 보면, 국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항목 당 평균점수가 3.0~3.8점 사이인 것을 고려할 때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방글라데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점수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연령, 가족생활수준, 신체적 질병수, ADHD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가족생활 수준은 부적인 상관관계, 연령과 신체적 질병 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가족생활수준과 ADHD 문제행동에서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신체적 질병 수와 ADHD 문제행동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 부모의 훈육방식에 따른 ADHD 문제행동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부모의 훈육방식에 따른 아동의 ADHD 문제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훈육방식이 긍정

적 혹은 부정적인 집단과 ADHD 전체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의 훈육방식이 긍정적인 경우(18.69)가 부모의 훈육방식이 부정적인 경우(21.23)에 비해 ADHD 전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훈육방식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환경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전체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훈육방식이 긍정적인 집단은 부모의 훈육방식이 부정적인 집단에 비해 학교환경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점수가 약 1~2점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점수에서는 약 7점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와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5.7%)가 질병 수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발달 및 의료적 위험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박현선, 1998), 방글라데시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방안은 시급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학교를 중단하게 된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을 때, 건강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아동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결과는 교육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빈곤아동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보건소,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향상된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ADHD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ADHD아동의 주요한 증상이 되는 행동적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값은 19.31점인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은 전체 평균값이 152.8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글라데시 국민의 낙천성과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인살라의 종교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가 이루어진 초중등학교의 비교적 좋은 교육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조사가 이루어진 초중등학교는 NGO가 운영하는 학교로 방글라데시의 다른 공립학교에 비하여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이 높으며(약 27:1), 우수한 교사의 자질, 교사의 높은 봉급 등 비교적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셋째, 부모의 훈육방식에 따른 ADHD 문제행동 및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훈육방식이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 간에 평균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 연구들(김민정·도현심, 2001; 김선희, 2005)에서도 처벌적이며 강압적인 훈육방식은 아동의 문제행동 및 공격성과 관련되며, 강압적인 처벌은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적응, 학교성적,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부모의 지지는 열악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오경자 외, 2005), 부모의 긍정적인 훈육방식은 아동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방글라데시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혹은 훈육방식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부재했고, 이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부모의 양육태도 및 훈육방식에 대한 조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하며, 자녀

의 발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녀양육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NGO 기관에서 운영하는 초중등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전체 방글라데시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방글라데시의 문화적인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설문지 번역 및 역번역의 한계, 조사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를 보완하고, 아동과 교사의 크로스체크, 질적면담 등을 통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방글라데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김미숙, 2005. "외동아와 형제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선희. 2005. "체벌행동과 애착안정성 및 아동 부적응과의 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옥분. 2000. "수업동기와 성격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 23-51.
- 오경자·김은이·도레미·어유경. 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4(1): 53-71.
- 이점순. 2006.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BK21사업단. 2007. 『방글라데시 국가 보고서』 (미간행).
- 장경선.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은진. 200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을 위한 학교기반 개입의 예비연구". 『열린교육연구』 13(1): 63-84.
- 정은하. 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정익중 공저(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학지사.
- KOICA(2006). 『방글라데시 밀레니엄 개발목표 이행보고서』 (미간행).
- Asian Development Bank. 2003. 『Social Protection for Disadvantaged Women and Children Project』 .

- David L Parker. 2002. "Street children and child labour around the world". *The Lancet. London.* 360.
- Greksa, L. P., Rie, N., Islam, A. B., Maki, U., Omori, K. 2007. "Growth and health status of street children in Dhaka, Bangladesh". *American Journal of Human Biology* 19(1).
- Rahman, A. and Chowdhury, S. 2007. "Determinants of chronic malnutri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in Bangladesh".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39(2).
- Salmon, C. 2005. "Child Labor in Bangladesh: Are Children the Last Economic Resource of the Household?".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21(1).
- Susanta Kumar Barua. 2006. "Poor and Destitute Working Children in Bangladesh". *SRG Welfare Society*, 1-3.
- Takashi. I., A. Tsutsumi, A. Md. Islam, S. Kato, S. Wakai, and H. Kurita, 2006. "Mental health, quality of life, and nutritional status of adolescents in Dhaka, Bangladesh: Comparison between an urban slum and a non-slum area".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3: 1477-1488.
- Ministry of Women and Children affair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06. 『National Plan of Action For Children 2005-2010』 .